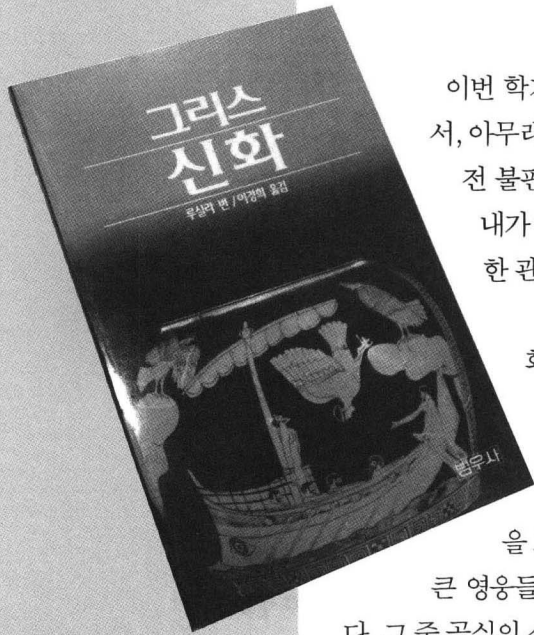


오역보다 우리말 표현이 아쉬운 작품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 루실라 번 지음
| 이경희 율김 | 범우사 | 182쪽
값 7,000원



글_ 강대진 서양고전학자

●이 글을 쓴 강대진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서양고전학 전공과정에서 플라톤의 《향연》 연구로 석사, 같은 과정에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저서로는 《잔혹한 책읽기》, 《신화와 영화》, 역서로 《아폴로도로스 신화집》, 《아르고호 이야기》 등이 있다.

이번 학기 내가 강의하는 대학의 신화수업에 수강생 숫자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아무래도 이제는 신화 열풍이 지나갔나보다 생각했었다. 그런데 웬 걸, 며칠 전 불핀치의 신화집을 검토할 일이 생겨서 집 근처 공공도서관에 들렀더니, 내가 미리 검색해놓은 신화집 여섯 종 중 다섯이 대출 중이었다. 신화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상당한 모양이다.

오늘 다룰 것은 얇은 신화집이다. 나는 항상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신화집들이, 오비디우스와 불핀치를 본받아 너무 묘사에 치중하는 것이 불만이었는데, 이 책은 아주 담백하게 이야기 골격만을 전한다. 오비디우스 등이 자세히 다룬 신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 책에서 빠져 있지만, 대신 중요한 영웅들의 행적이 소상히 다뤄져서 다른 책들의 약점을 보충해주는 면이 있다.

큰 영웅들의 일화를 중심으로 짜인 이 책은 우선 서문에서 신들을 먼저 소개한다. 그중 곡식의 신인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가, 온 세상에 농업을 전파했다는 ‘문화 영웅’ 트립톨레모스를 파송하는 그림에, 이 여신들이 인류에게 “옥수수 선물을 받게” (17쪽) 했다고 설명을 붙여 놓았다. 하지만, 보통 옥수수는 중남미가 원산지라, 신대륙 발견 이후에 유럽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 “옥수수”가 된 것은 아마도 com일 텐데, 그냥 일반적으로 ‘곡식’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이 책이 맨 먼저 소개하는 영웅은 헤라클레스다. 그가 만난 첫 시련은 요람에 들어온 두 마리 뱀이었다. 이는 질투심에 불타던 헤라가 보낸 것으로, 그 목적은 “헤라클레스와 배다른 동생 이피클레스를 죽이려” (33쪽)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피클레스는 “배다른 동생”이 아니라, ‘씨다른 형제’이다. 제우스가 알크메네라는 여인에게, 그녀의 남편 암피트뤼온 모습으로 나타나 잠자리를 같이한 후에, 남편도 그녀와 동침하여 쌍둥이가 생겼다는 것이다(옛적에는, 쌍둥이는 여인이 부정(不貞)한 결과라는 믿음도 더러 있었다).

성격이 괘괄했던 헤라클레스는 이따금 말썽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델포이의 ‘세 발 의자 사건’도 그 중 하나이다. 그가 일시적 광기에 사로잡혀 이피토스라는 젊은이를 죽인 뒤 델포이를 방문하자, 그곳의 여사제는 이 ‘상습 살인범’에게 신탁을 내리길 거부했다. 그러자 분노한 그는 신탁의 도구인 의자를 빼앗아가려 했고, 결국 델포이의 주인인 아폴론이 뛰어나와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 책은 문제의 도구를 “삼각 제단” (46쪽)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영어로 tripod라고 하면 그냥 ‘발이 셋’이라는 뜻이어서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데, 대개는 발이 셋 달린 술을 가리킨다. 하지만 이 물건은 의자로도 사용되었고, 어떤 도기 그림에 보면 도저히 술이라 하기 곤란한 형태도 있으니, 델포이와 관련해서는 ‘세 발 의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소개되는 영웅은 테세우스이다. 그는 외가에서 자라 나중에 아버지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책에서 그는 “트로이의 왕” (53쪽)의 딸에게서 태어나, “트

로이의 조부모”(54쪽) 밑에서 자라고 “트로이에서 아테네 까지”(55쪽) 육로로 갔다고 되어 있다.

희랍인 가운데서도 ‘그 땅에서 태어난’(autochthon) 것으로 자부하던 아테나이인들의 왕이 소아시아 출신이라니! 더구나 트로이아에서 아테나이까지 걸어서 간다니! 여기 “트로이”라고 된 것은 모두 “트로이젠(Troizen)”으로, 이 지역은 펠로폰네소스에서 동쪽으로 튀어나온 작은 반도 북부이다. 아테나이와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육로로 ㄷ자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다.

트로이아 전쟁을 소개하는 장에는, 자주 그러하듯 《일리아스》의 첫 구절이 소개되어 있다. “많은 용감한 영웅들의 영혼을 하데스의 지하세계로 보낸 분노, 여신,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파괴적 분노를 여기 노래하노라”(76쪽). 중간에, 어디 연결할 데도 없이

외롭게 놓인 “여신”이란 낱말만 없었다면 그러저럭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인데, 원래는 ‘여신이며, 노래하소서’ 하는 식의 호격(呼格)과 명령법 문장이다.

《일리아스》의 제 10권은 거의 모든 학자가, 맨 나중에 덧붙여진 것으로 간주하는 부분으로,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는 야간 행동을 그리고 있다. 희랍군 쪽에서 두 사람이 정찰을 나가고, 트로이아 쪽에서도 정찰병 한 명이 나왔다가 도중에 마주치게 되는데, 이 책은 그림과 함께 이런 설명을 주고 있다.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가 어둠 속에서 트로이 첩자 돌론을 놀라게 하고 있다”(78쪽). 하지만 이 마주침은 어린아이들 ‘까꿍’ 정도의 ‘놀라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숨었다가 상대를 사로잡는 ‘기습’이다. surprise란 단어가 나오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읊기는 역자들이 있는데, 주의할 일이다.

트로이아 전쟁이 끝난 후 귀향길에 있었던 사건들은 오뒷세우스의 모험으로 대표된다. 그가 소아시아를 떠나 처음 한 일은, 당시로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일부였던 해적질이었다.

하지만 키코네스인들의 도시를 약탈하던 일행은 첫 공격에 성공하고 방심했다가 역습을 당하며, 거기를 떠난 후에는 큰 폭풍을 만나 로토스 먹는 사람들의 땅에 닿게 된다. 그런데 이 책에는 두 사건의 연결이 이상하게 되어 있다. “그들이 약탈한 적이 있는 키코네스의 도시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로토스 이터(Lotus Eater)들의 손에 많은 희생자를 냈던 것이다”(95쪽). 이 설명에 따르면, 그 도시는 로토스 먹는 사람들의 도시이고, 해적질은 이전에 있었던 것이며, 이번에는 오히려 오뒷세우스 일행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호메로스 이래 우리에게 알려진 것과는 전

혀 다른 판본이다. 여기 “로투스 이터들”이라고 된 것은 아무래도 인칭대명사를 친절하게도 고유명사로 바꾸어주려다 틀린 것인 듯하다(좀 더 정확히 따지자면 원문이 있어야겠지만, 국내에는 이 책을 소장한 도서관이 없다. 아마존 헌책방을 검색하니 30센트에 나온 것이 있는데, 그걸 주문하면 약 10달러의 송료를 부담해야 한다. 배보다 너무 큰 배꼽에 그냥 포기하였으니, 독자들은 나의 소심함을 너무 비난하지 마시기 바란다).

외눈박이 괴물 폴뤼페모스의 동굴에 갇힌 오뒷세우스가 자신을 ‘아무 것도 아닌 자’(Outis)라고 소개하는 대목은 많은 저자, 역자의 실수를 자아낸다. 사람들이 이 희랍어 단어를 어떻게 표기할지 몰라 저마다의 독특한 표기법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아우티스”(97쪽)란 표기를 택했는데, 원래 희랍어 발음대로 적으면 ‘우티스’이다.

전쟁이 끝나고 10년이 다 되도록 오뒷세우스가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행방을 찾아 나선다. 찾아온 젊은이를 마주하여 메넬라오스는 “바다의 옛 인간(the Old Man of the Sea)으로부터”(117쪽) 들은 얘기를 전해준다. 오뒷세우스가 칼립소라는 요정에게 잡혀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전한 이는 보통 ‘바다의 노인’으로 불리는 존재로서, “인간”이 아니라 지위가 좀 낮은 ‘신’이다.

이아손이 황금 양털가죽을 찾으러 떠나는 모험의 이야기는, 하마터면 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두 아이, 프리소스와 헬레에서 시작된다. 이들은 어머니가 보내준 황금의 양을 타고 동방으로 도주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은, 이들뿐 아니라, 이들의 아버지 아타마스까지도 물로 바쳐진 것으로 소개한다. “제우스에게 제물로 바쳐진 아타마스, 프리소스, 헬레”(129쪽)이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이 책(번역)은 오역이라기보다는 우리말 표현이 걸리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다 지적하자면 지면도 모자라고, 근래 어떤 인터넷 서평에 내 글이 ‘잔소리가 심하다’고 한 것도 있어서 조금 위축되었다. 독자들께서 걸려서 읽으시기 바란다.

내 신화 수업에 학생들이 줄어든 건은, 다른 반으로 학생들이 모두 몰려갔기 때문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워낙 실력 있고 강의 잘 하기로 소문이 난 그 반 담당 선생님께서 이번 학기에는 깜빡 잊고 학생수를 제한하지 않았던 것이다. 신화 공부의 열기는 여전한데, 그만 선생의 ‘냉기’(冷氣)가 그 열기를 이긴 모양이다. 그저 반성할 뿐이다. ☹